

신사유람단

일본의 근대 문물을 조사하고 시찰하다

1881년(고종 18) ~ 미상



1 일본으로 떠난 동래부 암행어사

어윤중은 1880년(고종 17) 1월 11일 동래부 암행어사로 임명되었다. 그런데 국왕으로부터 받은 봉해진 서신을 열어보니 '일본 조정의 의논과 국세 형편, 풍속 인물, 교빙 통상 등의 대략을 염탐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 너는 일본의 선박을 빌려 타고 그 나라로 건너가 대장성이 관장하는 사무를 비롯하여 크고 작은 일들을 보고 듣되 시간에 구애받지 말며 날날이 탐지해서 별단으로 조용히 보고하라'는 내용이었다. [관련사료](#) 그를 신사유람단의 일원으로 임명하는 문서이다. 이때 동래부 암행어사에 임명된 사람은 어윤중만이 아니라 모두 12명이었다. 이들은 개별적으로 출발하여 암행어사의 행색으로 민정을 시찰하면서 3월 하순 경에 동래에 집결하였다. [관련사료](#) 그리고 서신에서 지시한 대로 4월 10일 안네이마루(安寧丸)라고 하는 일본 기선을 타고 일본으로 향했다.

2 신사유람단이 비밀리에 출발한 이유

고종은 1873년(고종 10) 흥선 대원군을 제치고 친정에 나서면서 대외정책을 바꾸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1876년(고종 13) 강화도조약이 체결되었으며 일본에 두 차례에 수신사를 파견하였다. 이를 통해 일본이 메이지유신 이후 추진하고 있던 부국강병책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조선이 향후 추진할 부국강병책에 참고하기 위해 여러 명을 동시에 투입해서 본격적인 조사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래서 12명으로 이루어진 신사유람단을 파견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데에는 2차 수신사로 일본을 다녀온 김홍집의 보고가 특히 큰 영향을 미쳤다.

신사유람단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암행어사로 임명되어 비밀리에 출발하였는데 그 이유도 바로 김홍집이 제공하였다. 그는 일본에 갔다가 돌아올 때 일본주재 청국공사관의 참찬관으로 있던 황준헌(黃遵憲)이 지은 『조선책략(朝鮮策略)』이라는 책자를 가지고 와 국왕에게 보고하였다.

관련사료 이 책자는 러시아의 위협을 거론하면서 이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조선이 미국과 외교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권유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관련사료

이는 조선이 서양에 직접 문호를 개방하는 것을 의미하였으므로 당시 조선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병조정랑 유원식의 상소 관련사료 를 신호탄으로 전국 각지의 위정척사사상을 가진 유생들이 상소를 올리기 시작하였다. 경상도에서는 만여 명의 유생이 서명한 이른바 만인소가 올라왔으며 관련사료 홍재학은 강경한 척사상소를 올린 탓에 처형당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조선책략으로 말미암아 1881년(고종 18)에 대대적인 위정척사운동이 일어났는데 이를 신사척사론이라고 부른다.

고종은 이러한 와중에도 대외 개방이라고 하는 정책적 기조를 그대로 고수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연장선에서 신사유람단도 파견하였다. 하지만 당시 유생들이 전국에서 들고 일어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신사유람단을 공공연히 보낼 수는 없는 형편이었다. 그래서 신사유람단 일행은 암행어사를 가장하여 비밀리에 출발할 수밖에 없었다.

3 공식 명칭은 무엇이었을까?

신사유람단은 비밀리에 추진되었으므로 공식 명칭은 없었다. 신사유람단에 뽑힌 사람들이 부여 받은 관직은 동래부 암행어사일 뿐이었다. 따라서 동래까지 갈 때는 암행어사였지만 바다 건너 일본에 가면서부터는 아무런 공식적인 지위가 없는 개인 신분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일행은 일본에 도착해서도 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숙소에 묵지 않고 자기 돈을 내고 여관에 묵었다. 이들은 사적으로 일본을 둘러보고 오는 형식을 취한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당시 조선의 공문서에는 이들의 활동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신사유람단이란 이름은 언제부터 생겨난 것일까? 매천야록에는 조정의 선비들 가운데 재주와 명망이 있는 사람을 뽑아 일본유람단을 보냈으며 이를 유람조사(遊覽朝士)라고 불렀다고 기록되어 있다. [관련사료](#) '유람'이란 말은 나오지만 '신사'라는 말은 나오지 않으며 대신 '조사'라는 표현이 나온다. 여기서 조사는란 조정에서 벼슬살이하는 신하라는 뜻이다. 그래서 현재 이를 조사시찰단이라고 부르자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신사유람단이란 말은 1931년 최남선이 지은 조선역사란 책에서 확인된다. 그가 이 말을 쓴 것은 1930년 『동아일보』에 게재된 윤치호의 회고담에서 따온 것으로 보인다. [관련사료](#) 윤치호는 유길준과 함께 어윤중의 수행원으로 신사유람단에 참가하였으며 일본에 남아 유학을 한 인물이다. 따라서 신사유람단이란 말은 윤치호의 기억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여겨진다.

4 신사유람단은 어떻게 구성되었나

신사유람단의 시찰 대상지는 일본이었지만 일본과의 사전 교섭 없이 독자적으로 추진하였다. 모든 일이 준비되고 나서야 비로소 일본 정부에 통보하였다. 일행의 숙박비를 비롯하여 모든 비용을 조선 정부가 부담하였다. 신사유람단의 준비에는 개화승 이동인이 큰 역할을 하였다. 이동인은 개인적으로 일본으로 건너가 있다가 수신사 김홍집과 함께 귀국하여 개화정책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었다.

신사유람단은 12명의 조사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조사 1명 당 보통 수행원 2명, 통역 1명, 하인 1명 등 5명 정도의 인원으로 1개 반을 구성하였으며 전체 12개 반 62명의 인원이었다. [관련사료](#) 선발된 12명의 조사는 조준영, 박정양, 엄세영, 강문형, 조병직, 민종묵, 이현영, 심상학, 홍영식, 어윤중, 이원회, 김용원 등이었다.

이들은 중견 관료로서 대부분 40대 후반부터 50대 초반이었지만 27세의 홍영식과 34세의 어윤중 등 청년 관료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 연령으로 37세의 심상학과 41세의 박정양이 중간층이었다. 신사유람단에 선발될 당시 관직은 12명 가운데 5명이 승지였다(엄세영, 강문형, 조병직, 민종묵, 이현영). 국왕의 비서실에 해당하는 승정원이 거의 총동원된 셈이다. 나머지는 참판과 참의, 교리 등의 벼슬을 하고 있었다. 관력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눈에 띄는 인물로는 김용원과 이원회를 들 수 있다. 김용원은 화원(畵員)으로 1876년(고종 13) 1차 수신사를 수행하여 일본에 다녀온 바 있는 인물이었다. [관련사료](#) 이원회는 수군절도사 등을 역임한 무장으로 신사유람단의 임무와 별도로 참획관으로 총포와 선박을 시찰하는 임무를 띠고 있었다. [관련사료](#)

5 무엇을 보았나?

일행은 4월 10일 안네이마루(安寧丸)를 타고 부산을 출발하여 다음날 나가사키에 도착한 후 나가사키 - 아카마세키 - 오사카 - 고베 - 요코하마의 경로를 거쳐 4월 28일 도쿄에 도착하였다. 이후 약 74일간 일본에 체류하면서 각 관서를 시찰하였다. [관련사료](#) 당시 일본의 하나부사 요시모

토(花房義質) 조선주재 공사가 일시 귀국하여 일행과 동행하였으며 외무성 대서기관인 미야모토 오카즈(宮本小一)와 원로원 서기관인 모리야마 시게루(森山茂)가 접대를 하는 등 일본 측은 이들의 시찰에 적극 협조하였다.

12명의 조사들은 일본의 각 관서를 분담하여 조사하였다. 조준영은 문부성, 박정양은 내무성과 농상공부, 엄세영은 사법성, 강문형은 공부성, 심상학은 외무성, 어윤중은 대장성을 각각 담당하였다. 세관에는 조병직, 민종묵, 이현영 3인이 배치되었다. 당시 조선 정부에서는 강화도조약 당시에 포함되지 않았던 관세 조항을 추가하기 위해 일본과 외교교섭을 한창 진행 중이었다. 따라서 이 문제가 당시 가장 중요한 현안이었던 셈이며 장차 근대적 세관을 설치하기 위해서 이 분야에 인력을 집중 투입한 것이다. 육군에는 이원회와 홍영식 두 사람이 배치되었다.

이들이 시찰한 시설로는 포병공창, 진대, 조선서, 조지소, 조폐소, 인쇄국, 방적공장, 제사소, 양잠소, 광산, 도기소, 초자제조소, 피혁장, 육종장, 도서관, 서림, 박물관, 박람회, 맹아원, 병원, 신문, 화폐, 우편, 전신, 전기, 등대, 천문소, 각종 학교를 들 수 있고 제도로는 관제, 군제, 세제, 세관, 통상지법, 도량형, 형법, 경찰제도, 감옥 등을 들 수 있다.

6 귀국과 보고 그리고 후속 조치

일행은 시찰을 마치고 7월 14일부터 반별로 귀국길에 오르기 시작했다. 어윤중과 김용원을 제외한 10명의 조사가 고베에 집결하여 치토세 마루(千歳丸) 편으로 조선으로 출발하였다. 이들 일행은 윤7월 3일에 동래에 도착한 후 암행어사의 행색으로 바꾸어 입고 각기 민정을 시찰하면서 북상하여 8월 말과 9월 초에 개별적으로 고종에게 복명하였다.

이들은 맡은 바 조사 결과를 담은 100여 책의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보고서는 시찰기류와 문건사건류로 나뉘어진다. 시찰기는 관서별로 제도를 기술한 것이고 문건사건류는 시찰 과정에서 얻은 견문과 소감을 자유롭게 기록한 것이다. 시찰기는 사람마다 형식과 분량이 차이가 나는데 그 가운데 가장 다채로운 내용을 담은 것은 민종묵과 이현영이 제출한 세관과 관련된 시찰기들이었다.

육군을 담당한 이원회와 홍영식이 제출한 시찰기를 보면 시찰한 분야가 달랐음을 알 수 있다. 홍영식이 제출한 일본육군총제는 군사제도를 다룬 반면에 이원회가 제출한 일본육군조전은 야전교범(Field Manual)이었다. 문신인 홍영식은 군사제도를 조사한 반면 무신인 이원회는 군사훈련 방법을 조사한 것이다. [관련사료](#)

이들이 제출한 보고서는 고종이 직접 열람하였으며 이후 개화정책 추진의 바탕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신사유람단에 참여한 인원들 자체도 개화정책 추진을 위한 인적자원이 되었다. 이들은 1881년(고종 18) 11월 통리기무아문에 배치되었는데 일본 시찰 당시 담당 관서와 배치된 부서를 연결해 보면 다음과 같다.

조준영:문부성-전선사, 박정양:내무성 농상무성-이용사, 엄세영:사법성-전례사, 강문형:공부성-감공사, 조병직 민종묵 이현영:세관-통상사, 심상학:외무성-동문사, 이원회 홍영식:육군-군무사

[관련사료](#) . 신사유람단 당시 맡았던 관서와 배치된 부서가 정확히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 별도의 특명을 수행한 어윤중

앞서 살펴보았듯이 신사유람단 일행은 대부분 그해 11월 통리기무아문에 배치되었는데 여기서 유독 어윤중과 김용원만은 빠져 있다. 그 이유는 이들이 이 무렵까지 귀국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신사유람단 일행이 귀국을 위해 고베에 집결하였을 때부터 이들은 빠져 있었다. 그러면 이들은 이 무렵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어윤중은 신사유람단 일행이 귀국한 뒤에도 일본에 남았다. 그것은 그가 출발할 때부터 모종의 특명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일본주재 청국공사를 만나 미국과 외교관계를 맺을 의사가 있음을 전달하였다. 그는 9월 1일 본국으로부터 3차 수신사 조병호가 도착하자 곧바로 중국으로 건너갔다. 조병호를 통해 본국으로부터 추가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중국 천진에서 이홍장(李鴻章)을 만나 조미수호통상조약(조미조약) 문제를 구체화시키기 시작하였다. 그는 이러한 정지작업을 마친 뒤 다시 일본으로 건너와 대기하고 있던 조병호와 함께 귀국하여 12월 14일 복명하였다. 고종은 신사유람단 파견을 계기로 대미수교문제까지도 한꺼번에 추진하려 하였던 것이다. 이로써 신사유람단을 비밀리에 파견한 이유가 더 분명해지는 것이다. [관련사료](#)

한편 김용원의 행적은 어윤중에 비해서 분명하지 않다. 그는 화원 출신이고 이미 1차 수신사 때 일본에 다녀간 적이 있었다. 다른 사람들과 달리 일본에서 시찰을 담당한 관서도 없었다. 다만 기선운항에 관한 제반사항 조사를 그에게 맡겼다고 한다. 어윤중과 달리 언제 귀국했는지도 분명하지 않은데 이듬해인 1882년(고종 19)에 다시 김옥균을 따라 일본에 건너가 사진술을 도입했다고 전해지고 있다.